**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(가)**  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淸平寺 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돋아나고 佳菜知時秀 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香菌過雨柔  시 읊조리며 **신선 골짝**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 나의 **백 년 근심**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- 김시습, 『유객(有客)』 -  **(나)**  **도연명(陶淵明)** 죽은 후에 또 연명(淵明)이 나다니 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 돌아와 수졸전원(守拙田園)\*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 <제1곡>  **삼공(三公)**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 흩던질 때  이 몸이 이 청흥(淸興) 가지고 만호후\*인들 부러우랴  <제8곡>  **어지럽고 시끄런 문서** 다 주어 내던지고  필마(匹馬)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**이대도록 시원하랴**  <제10곡>  **세버들 가지**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 **주가(酒家)**를 찾으려 **낡은 다리** 건너가니  **온 골**에 살구꽃 져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 <제15곡>  최 행수 쑥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 닭찜 게찜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**시름** 있으랴  <제17곡>  - 김광욱, 『율리유곡(栗里遺曲)』 -  \*수졸전원: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.  \*만호후: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.  **(다)**  오십이 넘은 **판교(板橋)**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.  “**청수(淸瘦)한 한 폭 대**를 그리어 추풍강상(秋風江上)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.”  ㉠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(俗事)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(江上)의 어객(漁客)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(淸高)한 마음이냐.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**삼매경**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.  **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**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.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꽉 엉켰을 뿐 아니라 고기도 **송사리** 떼밖에 오지 않는지라,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(許)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. 퐁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.  ㉡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꽉 찬 이 풍진(風塵)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. 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, 가다가 ㉢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.  ‘고기가 왔구나!’  다음 순간, 찌는 물속으로 자꾸 딸려 들어간다.  ‘옳다, 큰 놈이 물린 게로군.’ 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 |  | 잡아당길 때 무거울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여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,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. 큰 고기는커녕 어떤 때는 방게란 놈이 달려 나오고,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.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. | |  |  | | **[A]** | | |  |  |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 |  |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랴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, 속어에 이르기를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,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,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,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젠체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. | |  |  | | **[B]** | | |  |  | |  |  |   ㉣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(翰墨)\*의 유희(遊戲)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,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**성격 파산자**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,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**심사 틀리는 소식**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**내 서재**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**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.**  위진(魏晉) 간에 심산벽촌(深山僻村)에 은거하여 청담(淸談)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**욕**을 한 적도 있었으나, ㉤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(古人)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.  - 김용준, 『조어삼매(釣魚三昧)』 -  \* 한묵: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. |